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23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93:1-5.....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28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49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으신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기회와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루 하루의 삶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이사야 55:6-13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봉 헌(offering) ..... 1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506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다음 주일 오전 2시 부로 일광절약시간(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됩니다.
3. 교우소식
  - 출산축하 : 이진국권사님 • 김성애성도님 둘째며느리께서 건강하게 따님을 출산했습니다.

## 〈기도제목〉

- 탈레반 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박현숙 성도님의 회복(좌골신경통)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

〈말씀묵상〉 이사야 55:6-13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0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짝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6-7절)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일상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어떻게 나타납니까?(8-11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깨달을 때,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순종으로 보여드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상충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옛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방식, 경험과 지식 등은 말씀대로 살다가는 손해보거나 망하기 십상이고,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했다가 손해 보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위안을 스스로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순종이라 여기시고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협은 순종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식, 지혜의 범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 되었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제약과 제한,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불순종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제한시킬 뿐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일상 가운데 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